

전남 영광에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 참조기 양식단지,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 시설 등을 통해 향후 참조기 생산량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조기의 생산량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영광군은 참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이자, 그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통해 참조기 양식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 건립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국비 48억 원)을 투입하며, 참조기 양식단지부터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 물리·생물학적 여과 및 살균으로 양식사육수를 재사용하는 첨단 양식시스템

강미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참조기의 생산·유통·가공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630)
		담당자	사무관	장석준 (044-200-5635)



□ **사업개요**

- (사업명/기간)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사업/’23.~’25.
- (최종목표) 참조기 스마트 양식, 대량생산 단지, 가공·유통·수출,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 (사업방향) 지자체 주관으로 특화 모델을 기획·추진하고, 민간사업자와 연관된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 제고
- (사업내역) 사업비 160억원/ 국비 48억, 지방비 48억원, 민간 64억원

□ **세부현황**

- (사업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151 번지 등 일원
- (사업면적) 총 부지면적 95,797㎡ 중 시범양식장 부지 25,253㎡
- (주요시설) 시범양식장, 종자배양장, 가공·유통시설, 창업·교육시설 등
- (사업참여) 드림물산 영어조합법인, 영광군수협(굴비특품사업단), 광주과학기술원 등

< 전라남도 영광군 참조기 산업화센터 건립 조감도 >

